

얼굴

전북교통관광정보

내 사랑

전북

기획특집 전북의 가을

산행이야기 성수산(聖壽山)

특집 세계의 비경-베트남

내고장 맛기행 전주 왕이집

기업탐방 선진공업주식회사

취미 사진강좌

FOCUS MAGAZINE

가을특대호



정 기 독 자 모 집 안 내

본지는 전라북도의
교통과 관광문화를 이끌어 갈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 월간잡지입니다.
대중 교통의 저변확대와 관광명소의 발굴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발전과
내 고장 전라북도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포커스매거진에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더욱 알찬 내용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문의 : 063)211-4454

정가 : 3,000원

낙장 및 파본은 교환에 드립니다.

발행처: 포커스매거진
전 화: (063)211-4454
팩 스: (063)213-4454

고 문: 김상중
주 간: 유재중

자문위원
기획: 이의산
편집: 신연희
디자인: 정일웅

편집국장: 김철승
편집: 김진태, 김지나
편집기획: 조제희, 이용탁, 노다지
사진: 김상중, 신연희
취재: 박훈식, 김지나
편집디자인: AURA
번역(영문): 김홍덕
(일문): 신연희
(중문): 강창희

홍보기획팀장: 박철규

발행인 겸 편집인: 한미경

전북교통관광정보/2001가을호
등록일/ 2000년 10월 16일
등록번호/ 전북라01158
인쇄처: 서경문화인쇄사
용지공급처/ 한국제지(주)100g더블아트
발행처/ 포커스매거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90-5

인천지사 032)513-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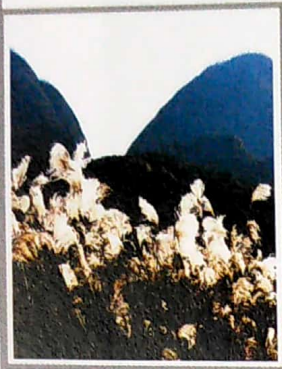
E-mail/focustour@yahoo.co.kr

전북교통관광정보는 한국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지에 실린 사진, 글, 그림은 포커스매거진의
서면 허가 없이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00 by Focus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우리 모두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표지-마이산

12. 커버스토리
마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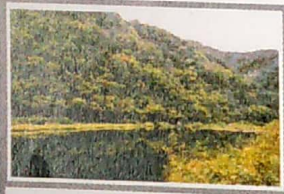
19. 권두제언
우리함께행복해집시다.

20. 이상휘칼럼
관광의중용지도

22. 산행이야기
성수산

30. 내고장맛기행
전주랭이집

32. 낚시가이드
화정지



섬진강

36. 기획특집
전북의가을

50. 백낙천칼럼
그래도소중한결혼의행복



개암사전경

52. 특집
세계의비경

58. 허브이야기

60. 우리들의이야기
공주보살

63. 신규업종
메가오토랜드

우리 모두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64. 내고장기업탐방
선진공업주식회사



장독

68. 포커스인터뷰
장세훈사장

72. 취미
사진강좌



사진강좌

80. 지나와함께하는인터넷여행
난매일인터넷카드로쓴다.

82. 애니메이션의세계
인랑

84. 재미있는생활영어
'May I see your driver's licence?'

92. 차한잔의여유
아빠가시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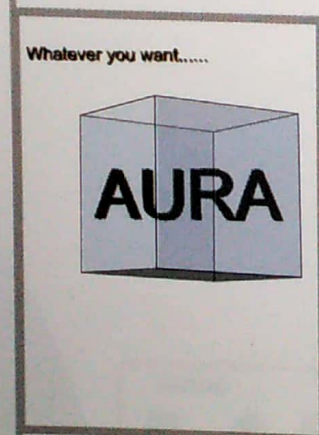
94. 음악이야기
휘기로의결혼

98. 마음의양식
계가취편

100. 보석이야기
사파이어,오팔

103. 알아두면좋아요.

118. 전북소식
포커스전북



design by djcool

128 **내 사랑 전북**

“전주 콩나물국밥의 자존심” **왕이집**...

예로부터 ‘전주’하면 넉넉한 인심과 함께 ‘맛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있으며, 한정식, 전주비빔밥과 함께 콩나물국밥은 전주 3대 전통음식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전주를 맛의 고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콩나물 국밥’ 한가지만 유독 고집하는 ‘전주 왕이집’을 찾아가 본다. ‘왕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름이다. 전주에는 국밥의 온도차이에 따라 분류가 되는 두 가지 스타일의 콩나물국밥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콩나물국밥은 너무 뜨겁다. 뿔뿔 끓는 뚝배기에 손가락이라도 닿으면 바로 델 정도로 뜨겁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 빨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바쁘게 국물을 들이키다가 입천장을 홀라당 벗겨 먹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콩나물국밥에 새로운 변화를 가미한 곳이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바로 이 집 우리 전주의 자존심 왕이집이다. 왕이집 콩나물국밥은 다른 전통적인 콩나물국밥 집에 비해 국물이 미지근한 편이다. 한마디로 후루룩 들이키기에 적당한 온도라 할 수 있다. 푸근한 인심을 강조하려는 탓인지 콩나물국밥을 주문하면 항상 두알의 계란과 여분의 콩나물, 오징어, 그리고 별도의 고추가 사리로 나온다. 일반적인 고추라 생각하고 방심하여 매운 고추를 넣어 먹으면 국물은 미지근하지만 입안이 후끈거릴 정도로 얼큰한 콩나물국밥이 되어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왕이집은 가족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고, 연인이나 친구들이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콩나물은 무공해이며,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강식입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전주의 맛으로 콩나물을 꼽았지요. 황포목, 모래무지, 파라시(八月柿), 미나리 등과 더불어 콩나물은 전주 십미(全州十味)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주의 맛이 잘 배어든 콩나물국밥 한 그릇에 우리 지방의

"웁이를 아시나요?"



웁이집
유 대 성 사장

특징과 오묘한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죠.』 여장부로 통하는 웁이집의 유대성사장의 말이다.
특징과 오묘한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죠.』
여장부로 통하는 웁이집의 유대성사장의 말이다.
『우리 웁이집의 기본 철학은 “1년 365일 문을 닫지 않는다.”이고 우리 식당 앞에 붙여진 현수막에서도 보듯이 “모두가 주무시는 시간에도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를 모토로 하고 있지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전 가족은 “손님께서 우리에게 급료를 주십니다.”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손님 을 왕으로 모시자는 의미를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꿈이 있다면 “웁이 콩나물 국밥”과 “웁이집”의 웁이만의 맛은 전국 어디에 가도 맛볼 수 없고 오로지 전주에 와야만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오시는 손님들께 불편을 드려 항상 죄송할 뿐입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집을 찾으시는 고객님 들께서는 우리 웁이집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다는 말보다 이견 잘못됐다고 꾸짖으시는 그 말이 저희에게는 바로 보약이니깐요.』

국밥의 가격이 왜 항상 삼천원이란 질문에 유대성 사장은 웃으며 말한다. 『저희 국밥의 가격은 예전에도 삼천원이었고 지금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현재의 3천원을 고수할 작정입니다. 전 북교통관광정보의 독자 분들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죠. 남들이 얼마를 하더라도 우리 웁이집의 가격은 삼천원입니다. 그리고 절대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도 약속드리고 요.』 마지막까지 전주인의 자존심을 눈에 힘주어 얘기하는 웁이 유대성사장의 여 장부다운 기질을 뒤로하며 오늘의 인터뷰를 정리해 본다. **코러스**

“웁이여! 영원 하라.”는 말을 뒤로하며... <注. 웁이 : 별때처럼 모여든다는 표현>

<글 사진 : 박철규>